

SESA

세사리빙  
seSA Living



먼지제로! 건강케어!  
고기능성 소재 **웰로쉬 마크**를  
확인하세요!

세사, 세사리빙은 극세사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주)웰크론이  
론칭한 기능성침구 브랜드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극세사 활용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웰크론 기술연구소 소속 최고의  
연구진이 침구 제작의 원료가 되는 원사의 연구 및 개발부터  
침구 생산 및 성능테스트까지 전 공정에 참여,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제, 먼지없는 건강한 이불, 알려지방지 기능성침구  
세사, 세사리빙을 만나보세요.



영국왕립지질학회  
품질인증



대한이토피학회  
추천제품



소비자중심 경영  
선정브랜드

# welcron<sup>+</sup>in



세사리빙 23 FW 프리마

# Contents

## 01

### Welcron Story

- 04 **FOCUS**  
Welcron그룹의 차세대 비전  
폐기물 처리부터 에너지화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든다
- 10 **On-site Coverage**  
[Welcron, KIMES 2023을 가다]  
첨단 섬유소재가 만든 건강한 미래, 인공혈관
- 12 **Zoom in Story**  
폭염을 이긴 혁신  
COOL한 '아이스침구', 고객 반응은 HOT
- 14 **New Business**  
Welcron 김해공장 이전 완료  
세계 최고 '방탄' 기술력 자신감
- 18 **New Line-Up**  
Welcron헬스케어  
예지미인 & 케어온 주요 제품 라인업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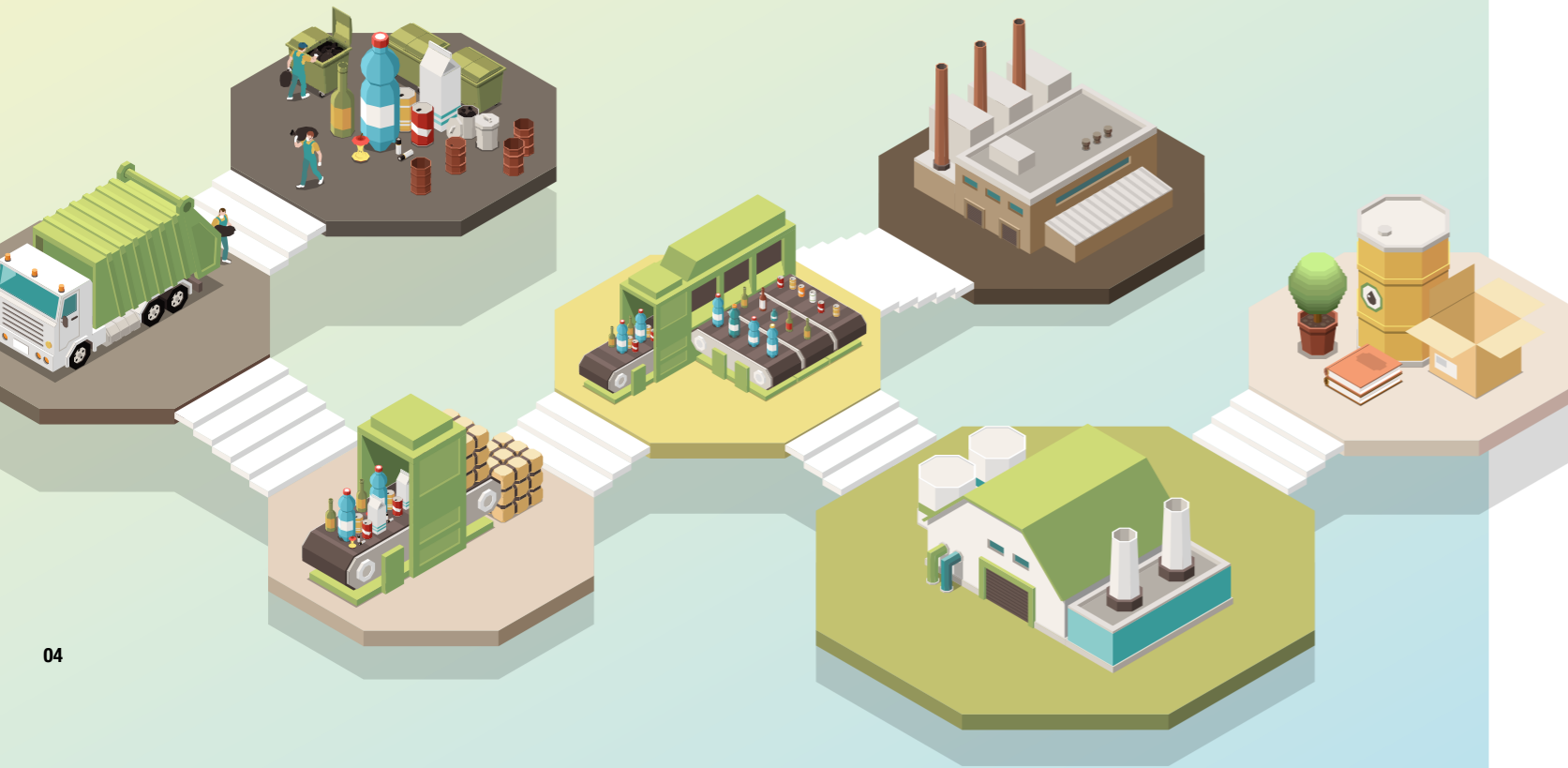
### Welcron People

- 20 **Zoom in Story**  
2차전지 날개 단 Welcron한택  
산업 핵심설비 공급하며 비상  
- 농축결정설비/폐수처리설비/용제회수설비
- 24 **Inside Team - Welcron 해외영업팀**  
Welcron 스테디셀러 '극세사 클리너'  
"친환경으로 새 역사 쓴다"
- 26 **CSR - 행복한 나눔**  
겨울 한파를 녹인  
따뜻한 연탄 한 장, 훈훈한 마음
- 28 **SESA People**

## 03

### Welcron Life

- 30 **Money & Trend**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  
사례로 살펴본 정보보안 핵심 수칙
- 32 **Health & Living**  
여성을 위한, 생리대의 '자연'스러운 진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소재 없을까?"
- 34 **News**  
Welcron그룹 단신 뉴스
- 38 **Campaign**  
Welcron그룹 정보보안 캠페인



## 웰크론그룹의 차세대 비전은? 폐기물 처리부터 에너지화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든다

### 웰크론 폐기물 에너지 주요 계열사

- (주)웰에너지 :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 (주)아리웰 : SRF 열병합발전 및 자가사용 통한 유기성 슬러지 자원화
- (주)미래제주 : 혼합 폐기물 재활용, BIO-SRF 제조 발전, 슬러지 건
- (주)이웰에너지 : BIO-SRF 제조, 폐목재 처리
- (주)이웰 : BIO-SRF 발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 웰크론사업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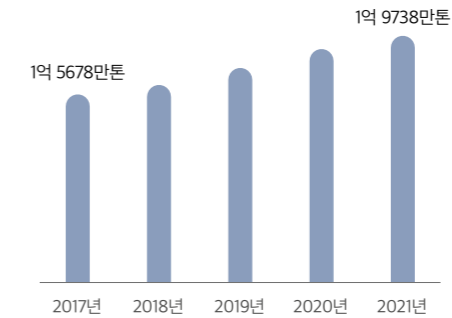
- ❶ 폐기물 처리업 M&A 등 시장 진출
- ❷ 기술·자본투입 통한 사업영역 확대 (재활용, SRF 제조, 에너지화, 발전 등)
- ❸ 안정적 수익 및 신성장동력 확보

### 폐기물 재활용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종합 폐기물 밸류체인 구축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오래된 비유가 날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폐기물 산업의 가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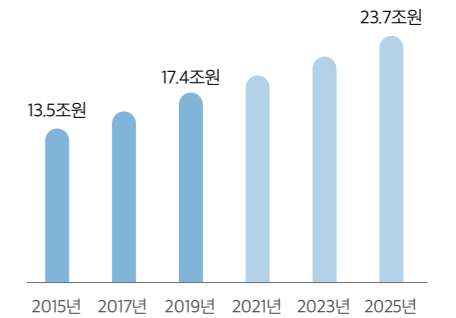
산업경제가 발전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다. 자연히 폐기물 처리 수요도 상승하고 있지만 매립, 소각 등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천시가 2025년부터 더 이상 수도권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 국내 폐기물 발생 추이



\*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 국내 폐기물 처리업 시장 규모



\* 출처 : 신영증권, 환경부, 국제통화기금,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자료 재구성



처리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인허가 규제와 지역 주민 반발 등의 문제로 민간은 물론, 공공 처리시설도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 등이 조사한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처리(자치단체 또는 국가 처리시설)량은 소폭 감소한 반면, 자가처리 및 민간 위탁처리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폐기물 처리 단가 또한 계속 상승하며 폐기물 산업의 성장세가 빨라지는 추세다.

웰크론그룹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폐기물 관련 유망 중소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며 폐기물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점차 육성하는 중이다. 주요 계열사들의 사업영역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리해본다.

## 아리웰/웰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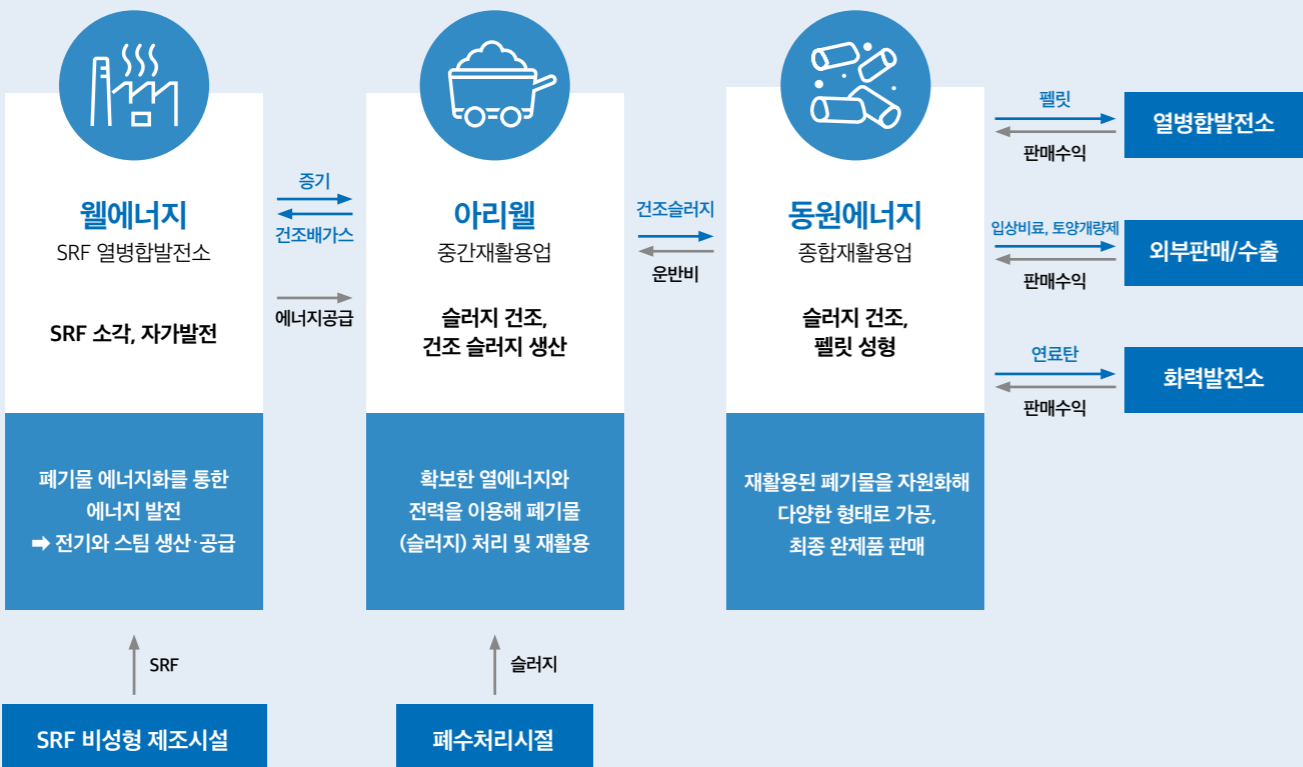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길 275  
문의 : 054-620-0088

아리웰은 하·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슬러지(하수 슬러지와 고농도 액상 폐기물을 통칭)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슬러지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폐수슬러지, 축산분뇨 등 유기성 슬러지는 국내에서만 연간 수백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직매립 및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이후 슬러지를 건조시킴으로써 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하는 동시에 연료자원으로 만드는 슬러지 재활용이 사회경제적 대안으로 꼽히는 중이다. 웰크론그룹은 설비투자 및 환경개선을 통해 사업장 운전효율을 높이는 한편, 웰에너지-아리웰-동원에너지로 이어지는 폐기물 자원화 체인을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우선 아리웰은 웰에너지가 생산하는 열원을 이용하여 슬러지를 건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건조된 슬러지는 시멘트의 부원료나 녹생토, 연료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슬러지 처리수익과 함께 제품 판매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웰에너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르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SRF 열병합발전설비를 구축한다. 폐플라스틱 등을 SRF 자원으로 삼아 자체 생산한 전기와 열에너지를 유기성 슬러지 자원화 사업장에 공급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로써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화석연료 사용 대체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ESG 트렌드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잉여전력은 판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수익도 예상된다.

## 순환 경제 시대의 황금알 웰크론그룹 '폐기물 밸류체인'



## 동원에너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560번길 25  
슬러지 처리 및 연료탄 공급 문의 : 010-5279-9444

폐수로부터 유기성 고형물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물질인 슬러지는 신재생에너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바이오 연료탄(Bio-SRF)으로 가공할 경우, 기존 화석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소, 인,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어 친환경적이고 양질의 비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원에너지는 이처럼 아리웰을 포함한 슬러지 건조시설로부터 공급받은 건조 슬러지를 연료탄이나 비료, 토양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핵심설비 공사가 완료되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은 크게 슬러지와 톱밥 혼합→교반→선별→건조→펠릿(Pellet) 성형→저장·공급 단계로 이루어진다. 슬러지와 톱밥을 혼합해 열량을 높이는 동시에 너무 마르지도, 너무 축축하지도 않은 최적의 반죽 상태로 만드는데, 불린 쌀로 떡반죽을 만들고 가래떡을 뽑는 과정과 비슷한 형태다. 최종 출하된 펠릿은 세부공정에 따라 발전소의 바이오 에너지원이나 농사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로 쓰이게 된다.

미국과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이처럼 적정 처리 과정을 거친 슬러지를 조경이나 농지는 물론, 일반 가정 정원에서도 쓸 보편화된 상태다. 플라스틱 등 화학 물질을 포함한 일반 폐기물과 다른 슬러지의 친환경적인 특성 덕분인데, 전 세계적인 자원순환 기조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이다.



동원에너지 폐기물 연료화 설비



동원에너지 폐기물 연료화 시설 전경 / 연료탄 성형설비

### 동원에너지 공정

####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

하수슬러지와 폐수슬러지를 톱밥과 혼합하여 신재생 연료인 화력발전소용 연료탄을 생산하여 폐기물 재활용



#### 친환경 유기질 입상비료 사업

하수슬러지와 폐수슬러지를 톱밥 및 보강제와 혼합하여 입상비료를 생산하여 폐기물 재활용





이웰 토평발전소 전경

## 이웰/이웰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27번길 33

문의 : 064-763-7002

제주도에 위치한 이웰과 이웰에너지 또한 웰크론그룹의 폐기물 밸류체인을 이루는 중요한 포인트다. 순환경제 시대의 종합 폐기물 사업모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발전시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웰은 Bio-SRF발전소인 토평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웰에너지는 폐목재를 이용한 Bio-SRF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다.

제주 토평발전소는 1,752㎡의 부지에 연료투입설비와 연소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이뤄져 있다. 바이오 SRF 연소 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산업용 보일러로 보내 고압의 스팀을 만들고, 그 스팀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시간당 최대 2.95MW의 전기를 생산 한다. 이웰 에너지가 소나무 고사목 등 지역 내 폐목재로 확보해 바이오 연료자원으로 가공하면 토평발전소는 이를 공급 받아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구조다.

전력을 판매해 얻게 되는 매전(SMP) 수익,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 등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웰크론한텍과의 시너지 효과가 빛을 발휘할 전망이다. 웰크론한텍은 그간 △폐기물 소각설비 △산업용 보일러 △대기오염 방지설비 등 환경분야에서 축적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십분 활용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 미래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매동산길 26

문의 : 064-799-3800

아리웰과 동원에너지, 이웰에너지가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매스)에 집중한다면 미래제주는 유기성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아우르는 폐기물 처리기업이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및 재활용 사업'과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래제주가 집중하는 분야는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다. 공사현장에서는 페콘크리트, 페아스콘 등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미래제주는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해 선별·파쇄·이물질 제거·분쇄 등 재처리 작업을 통해 '순환(재생) 골재'를 생산한다.

순환 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에 맞게 처리한 건설재료를 일컫는다. 천연 골재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유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까지 막을 수 있어 정부가 의무사용 대상 공사 범위와 의무사용량을 차츰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이외에도 미래제주는 제주지역에 풍부한 감귤, 임목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중간 처리해 바이오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건설장비(덤프트럭, 압물 차량, 굴삭기, 로더, 톱밥 제조기 등) 임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국내 폐기물 재활용·처리 시장은 영세한 개인·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체제로 수십 년간 흘러왔다. 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폐자원'의 가치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SK·보광·동서 등 대기업들이 하폐수·고철·폐기물 등 재활용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중이다. 우선은 안정적인 수익 때문이다. 경기를 타지 않는 산업 특성상 관련 설비만 갖추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다. 또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밝은 편이다.

웰크론그룹도 폐기물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폐자원의 수집부터 처리, 재활용, 최종 에너지화를 아우르는 폐기물 종합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각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Global Top-Tier Company for Water, Energy, Eco, Health'라는 슬로건처럼 친환경 사회에 기여하며 더 큰 성장을 이뤄가기를 기대해본다.

산업용 보일러 등 이웰 Bio-SRF 발전설비



미래제주 순환(재생) 골재 생산설비



# [웰크론, KIMES 2023을 가다] 첨단 섬유소재가 만든 건강한 미래, 인공혈관

웰크론은 독보적인 섬유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웰크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ePTFE(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 확장형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는 한국이 과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혈관 소재의 첫 국산화 사례로서, 앞으로 국내 의료환경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크론은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서 스텐트용 인공혈관 등 ePTFE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산업용 섬유소재 분야 웰크론의 유망 기술을 살펴보고, 국내외 인공혈관 시장의 현황을 짚어본다.

## 인공혈관 시장 동향과 국산화 의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원인 1위이며, 국내에서도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혈관질환은 고령 인구 증가, 불균형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다. 중성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동맥경화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심혈관질환 치료에는 약물 복용이나 혈관우회술, 혈관이식수술, 스텐트 수술 등이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혈관에 생긴 질환을 외과적 방법을 통해 치료할 때 꼭 필요한 인공혈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혈관을 상업적으로 생산 중인 기업은 고어텍스로 유명한 미국 '고어(GORE)', 일본 '테루모(Terumo)' 등 극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점유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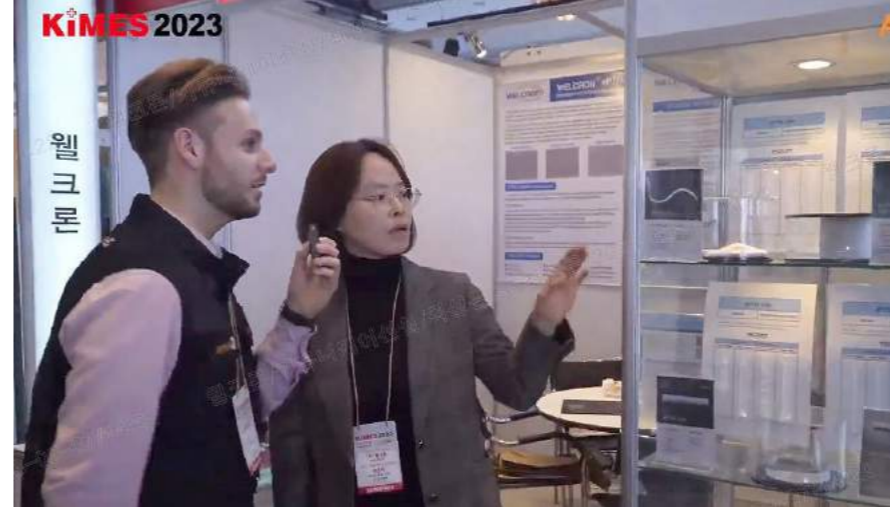
실제 지난 2017년에는 대체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어사가 국내 사업을 철수하며 심장 수술 중 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인공혈관은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식약처가 수입과 공급을 직접 챙기는 중이다. 필수 치료재료가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KIMES 2023에 전시된 웰크론의 ePTFE 튜브

## 이상적인 인공혈관의 조건

인공혈관은 인체에 삽입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는 만큼, 우수한 생체적합성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반복적인 신체의 움직임, 수축, 팽창 등에 견디는 탄성과 유연성, 내구성을 지니면서도 꼬이거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인체에 대한 독성이 없어야 하며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특히 혈액과 닿았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지 않는 동시에 영양소 등이 표면으로 적절히 투과할 수 있도록 미세한 기공도 갖춰야 한다.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연구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글로벌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KIMES 2023' 현장에서 웰크론 기술연구소 권은희 소장이 취재진에게 ePTFE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있다

웰크론은 지난 3월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산업 전시회 'KIMES 2023'에 참가해 한국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인공혈관 제품을 전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공개했다. 웰크론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15종의 ePTFE 제품은 스텐트 수술 시 금속지지체와 결합돼 사용되는 스텐트용 인공혈관이다. PTFE를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얇은 두께로 연신한 ePTFE는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웰크론은 의료소재, 그 중에서도 인공혈관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진행해왔다.

웰크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인공혈관용 ePTFE 튜브는 탄소와 불소 원자가 결합한 소재인 PTFE를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미세한 두께로 연신해 균일한 기공을 구현한 중공사막(hollow fiber membrane) 형태의 소재다.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주로 금속지지체와 결합돼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치료하는 스텐트용으로 쓰이고 있다.

ePTFE로 제조 가능한 인공혈관의 종류는 크게 외과용 인공혈관, 스텐트용 인공혈관으로 나눌 수 있다. 외과용 인공혈관은 개복 수술 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혈관 손상, 폐쇄, 누공 등에 의한 손상 혈관을 대체하거나 혈관과 혈관을 연결하는 용도다. 무릎 위, 복강, 흉부 등 사용되는 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경 4~10mm, 두께도 200~500μm로 크기가 다양한 편이다.

스텐트용 인공혈관은 주로 비개복 수술 시에 사용된다. 혈관 손상이나 혈관 질환에 의해 비좁아

진 혈관을 정상 상태로 넓히기 위해 금속지지체(bare-metal stents)와 결합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직경은 6~10mm, 두께는 100μm 정도로 외과용 인공혈관에 비해 두께가 얇은 편이다.

이번 KIMES 2023에서 웰크론은 4.3~20mm 직경의 스텐트용 ePTFE 15종을 출품하고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스텐트업체, 연구기관 등 고객사의 요구 성능에 맞춰 제품 두께나 규격 등을 세밀하게 구현하는 초미세 맞춤 가공기술이 강점이다. 권은희 웰크론 기술연구소 소장은 "PTFE 소재를 사용하여 0.1μm(마이크로미터)~1μm 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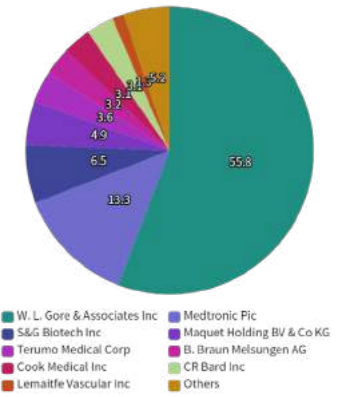
의 미세 공기구멍들을 갖춘 다공성 구조특성을 균일하게 유지하며 생산해내는 게 관건"이라며 "시중 설비로는 한계가 있어 주문제작을 통해 맞춤 생산설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웰크론은 기술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인간의 혈관을 100% 대체 가능한 제품 등 ePTFE 제품군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제품의 경우,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며 공급 안정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수입업체 효과를 통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은희 소장은 "아직까지는 오래 전부터 사용된 외산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주요 고객사로부터 품질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어 점차 납품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 섬유제품 대비 고부가가치 제품인 만큼 회사의 새 수익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국가 기술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웰크론 ePTFE 스텐트용 인공혈관 제품 사진

## 기업별 국내 인공혈관 시장 점유율



\* 출처 : Globaldata Market Outlook to 2025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혈관 시장은 2018년 4억 5,012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1.4%로 성장해 오는 2026년 5억 88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마켓앤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대륙별로는 아시아권에서 유관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고됐다. 실제 국내 인공혈관 시장의 경우, 글로벌데이터 분석 결과 2018년 69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9%로 빠르게 성장해 2025년 86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인공혈관 시장 기업 점유율은 W.L. Gore & Associates(미국)이 55.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Medtronic(미국) 13.3%, S&G Biotech(일본) 6.5%, MaquetHolding BV & Co KG(스웨덴) 4.9%, Terumo Medical(일본) 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폭염을 이긴 혁신... COOL한 '아이스침구', 고객 반응은 HOT

## 뜨거워지는 여름, 침구시장엔 시원한 새 바람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마다 '폭염'과 '열대야'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국내 폭염일수는 연평균 '8.8일'에 불과했지만, 이상기후가 심화되며 최근 3년 평균은 '15.6'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역대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던 2018년(35일) 이후 폭염은 더 빨리 찾아오고, 더 늦게 사라지고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극심해지는 여름 더위는 산업계 풍경도 바꾸어 놓았다. 식료품업계는 기후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물을 생산하는 '푸드테크'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현장근로가 많은 조선·철강·건설업계도 생산성 저하에 대응해 각종 자동화 시스템과 냉방용품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웰크론의 주력 사업분야인 침구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폭염에 맞서 더 시원한 여름용 침구를 찾는 소비자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냉감(Cooling) 신소재와 관련 신제품의 인기가 폭발한 것이다. 특히 일찌감치 연구개발에 뛰어들어 국내 침구업계 최초로 접촉냉감소재 기반의 '아이스침구'를 선보였던 웰크론은 독보적인 냉감 성능과 품질을 앞세워 이번 여름 침구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웰크론 아이스침구의 역사와 현재 위상, 향후 전망을 총정리 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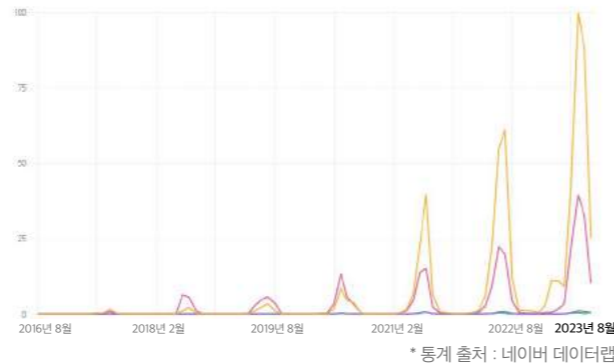
23 H/S 세사리빙 '아이스터치'

**냉감침구의 원조, 높은 관심 속 판매량 속**  
한국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2018년, 웰크론은 국내 침구시장에 기념비적인 제품을 선보였다. 바로 오늘날 웰크론의 여름철 최고 히트상품으로 떠오른 '아이스침구'다. 당시만해도 '접촉 냉감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침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다. 섬유공학이 고도로 발달하는 동안에도 국내 침구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린넨(아마), 모달, 모시 등의 천연소재나 인견과 같은 한정적인 소재만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웰크론이 선도적으로 선보인 아이스침구 특유의 시원한 감각은 금세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다.

결국 2023년 여름, 웰크론은 아이스침구만으로 약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3년 만에 판매량이 500% 이상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로 힘입어 올해도 생산량을 30% 가량 증산하였는데도 결과는 역시 '완판'이었다. 시중 유사품이 난립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선택을 독차지 해 '원조'만의 품질과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이다.  
최근에는 미국, 대만, 중국 등 해외수출도 연이어 성사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 코스트코 매장을 통해 제품의 인기를 확인한 일본 등 해외 각 지의 코스트코에서도 판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2016~2023년 냉감침구 포털 검색량 변화 추이

웰크론이 지난 2018년 업계 선도적으로 접촉냉감소재를 적용한 '아이스(CE)'를 출시한 이후, 국내 냉감침구시장이 개화함에 따라 관련 검색량도 매년 여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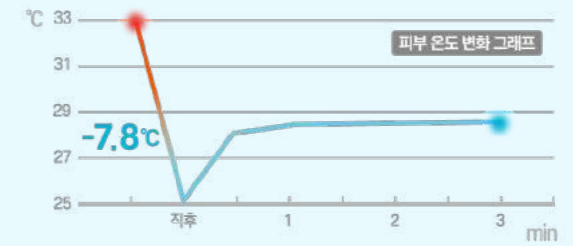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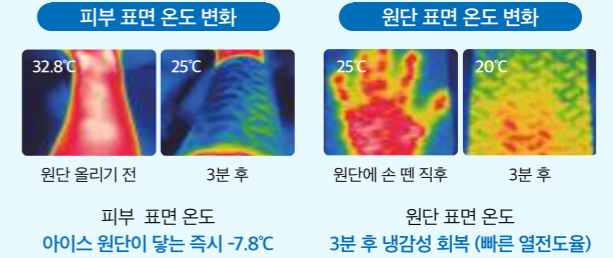
\* 통계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 -7.8°C 시원한 아이스침구, 장점과 세탁방법

세사리빙 '아이스터치', 세사 '아이스쿨링' 등 웰크론의 냉감침구 시리즈는 슈퍼 냉감 섬유를 적용하여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하는 원리로 피부에 닿았을 때 즉각적으로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준다. 또한, 통기성과 흡·방습성이 우수해 습한 날에도 침구의 끈적임을 억제하여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23 H/S 세사 '아이스쿨링'



- 우수한 열전도성**  
열을 빠르게 주변으로 전달해 체온 상승을 억제하여 시원한 느낌 유지
- 뛰어난 내구성**  
높은 내구성과 고탄성율, 매끈한 촉감을 지녀 오랜 기간 사용 가능

- 기본 좋은 쾌적함**  
적절한 체온 유지가 가능한 접촉 냉감 소재로 여름밤 쾌적한 수면에 도움
- 편리한 관리**  
물세탁이 가능하여 관리가 간편하고 빠르게 건조됨

### 냉감효율 UP, 24HS 미리보기

웰크론은 2024년 냉감기능과 통기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신제품 '아이스침구2(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섬유의 냉감효율을 높일 수 있는 편직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내년도 출시를 목표로 후속 작업에 매진하는 중이다. 해마다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냉감침구를 업그레이드하고, 시장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특히 최근 미국 첫 수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냉감침구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웰크론 리빙영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고물가 현상과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정 내 냉방기전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는 냉감 침구가 큰 호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유사품과 구분되는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베리파이드마켓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냉감 소재(Cooling Fabric)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약 6%씩 성장해 30억5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웰크론 김해공장 이전 완료, 세계 최고 '방탄' 기술력 자신감

경남 김해시 진례면 일대에 조성된 김해테크노밸리는 일반적인 지방 산업단지의 이미지와 달리 태양광 가로등, 쾌적한 녹지 네트워크 등이 갖춰진 친환경 산업단지다.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과 더불어 고속도로, 철도 등의 물류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우수한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 신공장 완공... '최첨단 설비' 완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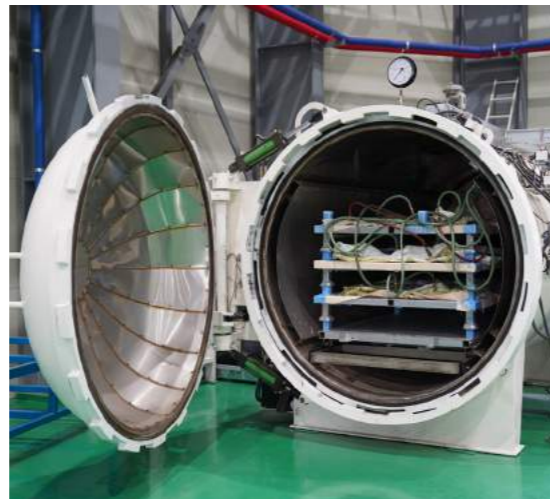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군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떠올리면서 일하다 보면 제품 품질과 성능에 결코 소홀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14 방산제품을 생산하는 웰크론 방산본부는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따금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시장경기가 주춤할 때에도 군 방탄판 공급과 같은 굵직한 사업들을 연이어 수주하며 회사의 안정적인 실적에 기여하는 중이다. 실제 2021년 169억 원이었던 방산분야 매출은 지난해 들어 235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올해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약 50억 원 규모의 방탄판 공급사업을 수주하는 등, 제품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신공장 확장이전 기념식이 열린 웰크론 방산본부의 김해공장을 찾았다. 김해 신공장은 총면적 약 10,000제곱미터(㎡·약 3,300평) 규모로, 개인용 방탄판과 부가장갑 방탄판 등을 제작하는 웰크론의 핵심 생산기지다.



더 넓고 쾌적해진 제조시설은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한 설비 배치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고, 초대형 프레스, 오토 크레이브(진공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 제품을 성형하는 장비) 등 첨단장비로 연간 최대 약 160,000개의 개인용 방탄판 제조가 가능하다.

오토 크레이브



웰크론 방산본부 김해공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32  
055-346-6808

2023년 이곳에 새롭게 터를 잡은 웰크론 방산본부는 신공장을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웰크론은 이곳을 방산용품 생산 전초기지이자 연구개발시설로 삼아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군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웰크론은 현재 국내 방탄판 제조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사업도 우크라이나·말레이시아·호주·콜롬비아·필리핀·인도네시아 등지로 확대되는 중이다. 수출처가 다변화되자 생산라인 전반에도 혁신이 필요했고, 결국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공장 부지와 건물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정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15 웰크론 방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장 이전은 해외 분쟁지역 증가에 따라 높아진 'K-방산'의 위상과 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역량과 신제품 개발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웰크론의 방산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웰크론 방산본부 김해공장을 시찰 중인 웰크론그룹 이영규 회장(가운데)과 신정재 사장(왼쪽)이 제조기술센터 김천수 상무로부터 신공장 설비와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우)신공장에 설치된 2500t 초대형 프레스





**차량용 방탄판 등 제품군 확대... 'IED' 공포 막는다**

웰크론은 공정 간 속도 유지, 단위 면적당 생산성 개선 등 디테일을 챙기는 동시에 신제품 개발 및 양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신형 **경량방탄판\***을 비롯한 개인용 방탄판은 물론, △장갑차·자주포 부가장갑, 지뢰방호 등을 위한 차량용 방탄판 △선박·함정용 방탄판 등 부가가치가 더 높은 영역까지 아우르겠다는 목표다.

**웰크론 경량방탄판**

웰크론이 개발한 경량방탄판은 철갑탄(Cal. 30 AP M2탄)도 방어할 수 있는 NIJ 기준 레벨4를 충족하는 동시에 현용 방탄판 대비 중량은 약 10%, 두께는 약 7% 감소시킨 차세대 방탄판이다. 기존 제품과 동급 성능 구현 및 경량화에 성공함으로써 전투원의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크론 경량방탄판



웰크론 방산본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TIGON 장갑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사는 해외 모처에서 진행된 TIGON 지뢰방호 KIT 성능시험(웰크론 전투차량용 방탄판 적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웰크론은 앞으로도 각종 군사 목적 방탄판 개발 및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웰크론 방산본부 관계자는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현대전에서 지뢰나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급조폭발물)의 위협이 부각되면서 장갑차량의 방호능력이 군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동성과 방어력 간 균형을 맞추면서도 탑승인원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호제품 개발에 각국이 몰두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상회하는 분야별 고성능 방호제품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 16일 웰크론 김해공장에서 열린 공장 이전 기념식에서 웰크론그룹 이영규 회장과 신정재 사장, 방산본부 이재호 상무, 제조기술센터 김천수 상무 등 방산본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예지미인 생리대 제품 라인업 소개

웰크론에 세사와 세사리빙이 있다면 웰크론헬스케어에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여성용품 전문 브랜드 '예지미인'이 있다. 2002년 국내 최초의 한방 생리대를 개발하며 인기를 얻은 이후, 지속적인 브랜드 리뉴얼 작업과 콜라보 마케팅 등을 통해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스테디셀러인 한방 생리대부터 고객들의 개별적인 취향과 니즈에 맞춘 소재별 생리대 라인업을 총정리 해봤다.



### 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

오가닛 네추럴 | 오가닛 데일리 | 그날엔순면

천연소재 생리대는 일반 생리대보다 가격이 높지만 건강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예지미인은 3년 이상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목화를 사용한 유기농 순면커버 제품군을 강화중이다. 특히 2023년 출시한 '오가닛 네추럴'은 화학적인 표백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나무 흡수티슈를 적용,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을 더욱 낮췄다. 찹쌀떡토끼 캐릭터 '몰랑이'와 협업해 다양한 콜라보 굿즈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오가닛 데일리'도 인기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식물성 소재 비오셀™ 생리대 더포레스트

리뉴얼로 새롭게 태어난 '더포레스트(숲속이야기)'는 비오셀™ 라이오셀 섬유가 적용된 비건 생리대다. 라이오셀 섬유는 유럽 산림에서 자란 재생 가능한 목재를 이용한 식물성 소재로, 제품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습한 기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에어홀 통기 필름설계와 비오셀 섬유 특유의 박테리아 증식 억제 효과로 항상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 프리미엄 한방 생리대

윤슬 | 건강한 나의 예지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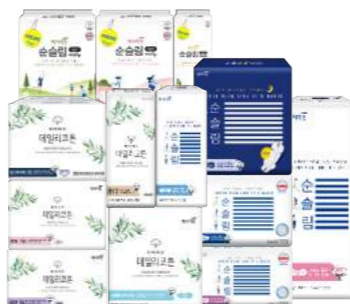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한방 생리대를 출시했던 역사에 걸맞게 특허기술과 최고급 한방 소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군이다. 100% 국내산 시그니처 한방 분말(강화사자발쑀, 어성초, 익모초, 당귀, 박하)이 사용되는데, 동의보감 속 여성질환에 탁월한 성분들이 엄선됐다. 특히 강화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고품질 원재료를 공급받고, 국내 유일 한약재 분말 도포 공법으로 원료 고유의 향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더욱 안심할 수 있다.



### 순면감촉 생리대

순슬림 | 순슬림 데일리 | 데일리로튼

예지미인의 순면감촉 생리대 3종은 생리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다. '순슬림'과 '순슬림 데일리'에 구현된 3D 라이트핏 커버는 4,832개(중형 기준)의 입체 3D홀로 피부에 닿는 면을 30% 가량 줄여주고, 강한 흡수력을 내기 때문에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편안함을 강조한 '데일리로튼'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볼록 맞춤 구조와 커버의 웨이브 패턴을 통해 민감한 피부를 부드럽고 안락하게 감싸준다.



## 웰크론헬스케어 케어온 주요 제품 라인업 소개

긴 시간 전 세계인을 괴롭혔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엔데믹'이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해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와 인플루엔자 유행 등으로 인해 마스크는 일상생활 속 필수품으로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할 전망이다.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웰크론헬스케어의 방역용품 브랜드 '케어온'의 주요 제품 라인업을 소개한다. 케어온의 모든 마스크 제품에는 웰크론의 고품질 MB(멜트블로운)필터가 적용돼 있어 각종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 케어온 베이직마스크 KF94

케어온 베이직마스크 KF94는 걸감-지지체-필터-안감으로 이어지는 4중 여과시스템과 BFE(세균여과효율) 99% 이상을 자랑하는 웰크론의 고품질 MB필터를 적용, 극히 작은 미세입자까지 차단할 수 있어 호흡기 감염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3단 접이식 구조 덕분에 장시간 착용 시에도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코와 입은 물론, 얼굴 하관을 깔끔히 커버하면서도 피부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 케어온 세이프메디 패션마스크 KF94

지루한 흰색은 그만, 화사한 색감에 성능까지 갖춘 패셔너블 마스크는 어떨까. 세이프메디 패션 마스크 3종은 피부톤에 맞춰 데일리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네추럴 베이지', '로맨틱 핑크', '시크 그레이' 등 세련된 컬러감을 적용한 제품이다. 아쿠아트랜스\* 기법, BFE 99% MB필터 등을 통해 우수한 착용감과 여과 성능을 구현한 것은 물론, 자외선(UV-A, UV-B) 광선 차단율에 대한 KOTITI 시험연구원의 인증 테스트도 완료해 햇볕이 강한 날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케어온 세이프메디 라이트 마스크 KF-AD

마스크가 주는 조금의 답답함도 느끼기 싫다면, 케어온 세이프메디 라이트 마스크를 추천한다. 호흡 편의성에 초점을 둔 비밀차단마스크로, 얇고 가벼운 여과구조와 우수한 수분전이성 덕분에 땀이 나기 쉬운 여름철이나 야외활동 시 쾌적하게 사용하기 좋다. 특히, 기존 KF94-KF80 MB필터보다 더 가벼운 MB필터가 적용되었지만 성능 만큼은 BFE 95% 이상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2단 접이식 형태의 새부리형 디자인 덕분에 얼굴형에 부드럽게 밀착되며, 호흡 공간이 넓어 숨쉬기가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 함께 쓰면 좋은 CAREON ITEM



#### 케어온 세니타이저 젤

99.9%의 강력한 소독 효과는 기본, 흐르지 않아 사용이 편리한 비스코시티(Viscosity) 젤 타입에 자연유래 추출물을 함유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케어온 세니타이저 미스트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액상 스프레이 타입의 휴대용 세니타이저 미스트. 99.9% 살균 기능에 끈적임이 없고, 다양한 향과 색상으로 출시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가방이나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도 장점.

### 아쿠아트랜스 기법

케어온 마스크의 중요한 특징은 안감에 적용된 \*아쿠아트랜스(Aquatrance) 기법이다. 주로 스포츠웨어에 사용되던 원단 제조기술로, 마스크의 안감이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무더운 날에도 산뜻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안경을 착용했을 때에도 '김 서림'에 의한 불편함을 방지해준다.

## 2차전지 날개 단 웰크론한텍, 산업 핵심설비 공급하며 비상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핵심부품인 배터리와 원료 금속의 가치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배터리 3사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성장세도 눈에 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웰크론한텍은 2차전지 소재 분야 핵심설비들을 공급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2차전지 소재 설비사업을 담당하는 웰크론한텍 플랜트부문의 에너지절감 산업설비 매출액은 올 상반기 누적 기준 약 344억 원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436억 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



웰크론한텍 플랜트부문 이기창 사장



시장환경도 우호적이다. 전 세계적인 원료 확보 경쟁과 산업 밸류체인 확대로 국내에서도 주요 배터리 제조사, 양극재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리튬 정제설비 등 유관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그룹은 이달 들어 자회사인 포스코HY클린메탈을 통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준공했고, 여기서만 연간 니켈 2500톤, 코발트 800톤, 탄산리튬 2500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해외광산투자도 병행해 2030년까지 리튬 42만3000톤, 니켈24만톤을 생산할 계획 이어서 향후 소재 정제를 위한 추가 설비 도입도 확실히 된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웰크론한텍의 고객사이기도 하다.

20

이외에도 LS는 엘앤에프와 합작회사를 구성하고 2차전지 전구체 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설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산해 2029년에는 12만톤 수준까지 생산량을 높인다는 목표다. 여기에 두산그룹이 올해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두산, 포스코,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간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웰크론한텍은 2차전지 소재 분야 크게 '농축결정설비', '폐수처리설비', '분리막 용제회수설비' 등 3대 설비를 중심으로 국내외 2차전지 밸류체인 성장에 공헌하고 있다.**

### 2차전지 농축결정설비

웰크론한텍의 농축결정설비가 유관업계로부터 주목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우수한 원가절감 효과'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원가의 40~50% 가량을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다. 양극재는 2차전지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이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들은 리튬 니켈 망간 등을 이용한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리튬과 니켈 등 핵심 원료들 가격은 이미 수요가 치솟아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능한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게 관건인데 에너지절감기술이 적용된 웰크론한텍의 농축결정설비가 제격이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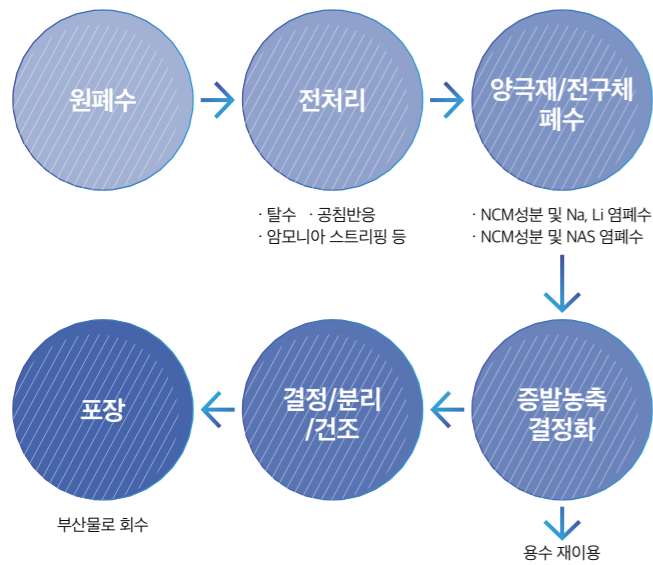
웰크론한텍이 공급한 니켈 결정화설비\_캠코 온산공장

농축결정설비는 간단히 말해 액상 상태의 원료 수용액을 대상으로 △농축 △결정화 △분리 △건조 등의 정제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다. 고객의 설비 도입 목적과 요구조건에 따라 액상을 고농도로 농축하거나, 액상에 함유된 특정 원료만 고순도로 완벽히 정제 및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음료산업은 물론, 제약·바이오, 라이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웰크론한텍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농축결정설비를 비롯한 주력제품들을 2차전지 분야에 최적화하고, 양극재-전구체기업, 분리막 제조사 등 매출처를 대폭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수산화리튬 농축결정설비, 황산니켈 결정화 설비 등 2차전지 양극재 원료들을 공략하면서 유망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증기를 기계적으로 압축해 온도를 높임으로서 폐증기를 재생하여 재이용하는 MVR, 축소-확관 노즐을 통해 증발 증기의 온도와 압력을 상승시켜 공정에 재이용하는 TVR, 증기를 순차적으로 열원으로 사용하는 다중효용 농축시스템 등을 통해 스팀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보일러에 의한 값비싼 증기를 사용하는 대신 자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재이용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다. 전기와 스팀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ESG 트렌드 속에서 새로운 장점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2차전지 폐수처리설비

웰크론한텍 2차전지 양극재/전구체 폐수처리설비 개념도



리튬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니켈(Ni), 망간(Mn), 코발트(Co) 등의 중금속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처리 없이 배출될 경우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웰크론한텍은 2차전지 공정상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에도 대응하여 산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 속 희소자원은 분리 및 회수하여 슬러지 처리비와 수도 사용량을 최소화한다. 농축결정화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슬러지로 배출하고 남은 깨끗한 용수는 산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어 수도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웰크론한텍이 공급하는 무방류(Zero Liquid Discharge, ZLD) 폐수처리설비는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98~100%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막분리, 증발 농축 및 결정화 기술 등 농축결정설비의 핵심기술들이 수처리 분야에 적용된 결과다.

2차전지 소재 설비는 웰크론한텍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요 고객사와 협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시장에서 특화 설비 솔루션 사업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3D로 본 웰크론한텍 ZLD(폐수 무방류 시스템) 프로세스



2차전지 분리막 용제회수설비

분리막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2차전지의 4대 핵심 구성요소다. 절연 소재의 얇은 막으로,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동시에 미세한 기공으로 리튬이온의 통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만큼, 제조가 까다로워 배터리에서 양극재 다음으로 원가 비중이 높다. 특히 '기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제조방식이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는데, 전기차 배터리에는 고사양이 가능한 습식 분리막이 주로 사용된다.

웰크론한텍이 공급하는 '분리막 용제회수설비'는 이러한 분리막의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설비다. 이 설비는 습식 분리막 제조과정에서 기공을 만드는데 쓰이는 고가의 MC(Methylene Chloride) 용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분리막 완제품 생산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기존 습식 분리막 공정에서 MC는 한번 쓰인 후 그대로 버려지곤 했다. MC에 의해 분리막 필름에서 오일이 빠지며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MC와 오일이 섞여있는 폐MC 수용액을 다시 쓸 경우, 분리막 수율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웰크론한텍의 용제회수설비를 활용하면 MC와 오일을 99% 이상 고순도로 분리·회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용하면 MC와 오일을 99% 이상 고순도로 분리·회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기존 습식 분리막 공정에서 MC는 한번 쓰인 후 그대로 버려지곤 했다. MC에 의해 분리막 필름에서 오일이 빠지며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MC와 오일이 섞여있는 폐MC 수용액을 다시 쓸 경우, 분리막 수율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웰크론한텍의 용제회수설비를 활용하면 MC와 오일을 99% 이상 고순도로 분리·회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중국 H사에 공급된 웰크론한텍 분리막 용제회수설비(MC Distillation LP Refinery System)



## 웰크론 스테디셀러 ‘극세사 클리너’, “친환경으로 새 역사 쓴다”



독일 프로이덴베르크(Freudenberg)사의 글로벌 청소용품 브랜드 '바이레다(Vileda)'는 환경 보전을 위한 'LOVE IT CLEAN'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웰크론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클리너' 분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Vileda.com



웰크론이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극세사 클리너(Microfiber Cleaner)’다. 기존 청소용품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던 면 소재 제품과 비교해 월등한 세정력과 흡수력, 내구성 등을 앞세워 순식간에 업계 판도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극세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웰크론은 이후 고밀도 극세사 원단을 이용한 알리지케어 기능성 침구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크게 성장했고, 지금과 같은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업 성장의 모태가 된 극세사 클리너는 웰크론 해외영업팀의 열정으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품질’은 기본이고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가치까지 중요하게 인식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ESG 실현’이라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나선 것이다.

### 차별화된 소재로 고부가 친환경 시장 공략

웰크론 해외영업팀 송두한 부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및 ESG 의무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유통사는 물론, 그 납품 협력업체와 투자기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ESG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웰크론이 선제적으로 개발한 친환경 클리너는 그 니즈에 완벽히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웰크론 친환경 클리너 분야 주요 제품은?



페PET 리사이클링 클리너

웰크론의 ‘리사이클링 클리너’는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 섬유로 제조된다. 제품 규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품 1개당 페페트병(1.5L) 약 5개 분량의 재생소재로 제조돼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이다. 웰크론은 ‘GRS(Global Recycle Standard)’ 국제 친환경 섬유제품 인증을 획득하고 해외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클리너는 물론, 비치 타월, 우산 제수기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조되고 있다.



생분해성 클리너

식물 추출물 등 바이오매스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클리너’는 매립 시 환경오염 없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이다. 종이 빨대 등 기존 생분해 일회용품과 달리 클리너는 수백, 수천 회의 세탁과 마찰에 견뎌야 하는 만큼 까다로운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웰크론은 오랜 노하우를 이용, 우수한 내구성과 뛰어난 흡수력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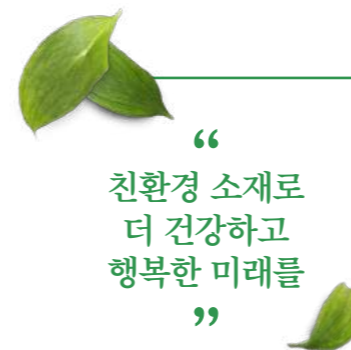
구리 항균 클리너

‘항균력’을 표방하는 일반 섬유제품은 화학물질인 항균제를 표면에 코팅하거나 원료에 혼합하는 형태로 제조되는데, 세탁 과정에서 항균제가 하천·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항균 효과의 지속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웰크론은 구리(Cu) 성분을 이용한 99.9% 항균 원단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를 클리너에 접목했다. 오염물질을 닦아내는 청소용품의 본질에 걸맞게 반영구적인 항균 효과를 구현하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천연소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접목한 친환경 클리너는 웰크론의 클리너 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출시 초기인 지난 2021년에는 약 10% 미만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고객사 및 해외 바이어들의 열렬한 반응과 함께 본격적인 수출 공급이 이뤄지며 1년여 만에 약 30% 이상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제품 출시에 앞서 꼼꼼한 시장조사와 고객분석을 통해 최적의 소재를 다각도로 검토했고, 개발팀과 협업해 기존 제품에 뒤처지지 않는 성능까지 구현해내는데 성공한 덕분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과 마스크 폐기를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크게 증가한 시대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했던 것도 주효했다.

### ‘친환경’이 곧 ‘프리미엄’인 시대, 수익성 제고 기대

웰크론 해외영업팀은 오는 2024년까지 친환경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친환경 클리너는 일반 클리너와 비교해 조금 더 가격대가 높지만, 오히려 호의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향후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경영활동이 고객의 구매 결정부터 기업가치와 투자 유치, 브랜드 파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로 회사의 수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딜로이트의 세계 소비자 조사 보고서(2021)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MZ세대에게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는 사회적 관심사 1~3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50% 이상이 친환경 제품 구매를 위해 추가지불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에서 진행된 한국소비자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6.4%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친환경 소재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

웰크론은 기존 해외 고객사들에게 공급하던 클리너 제품들을 친환경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해나가는 한편, 신규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 두바이, 러시아, 호주, 네덜란드 등지의 바이어들과 새롭게 물고를 뜨고 제품 주문량을 높여가고 있다. 웰크론과 해외영업팀은 전 세계 소비자들과 그 미래 후손까지 염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미세기술(micron)로 사람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 (Well-being)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기업명처럼, 진정성을 담은 탄생한 차세대 클리너 제품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기를 기대한다.

## 겨울 한파를 녹인 따뜻한 연탄 한 장, 훈훈한 마음

겨울 추위가 찾아온 12월의 어느 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마다 봉사에 나선 이들이 있었다.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웰크론그룹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현장을 찾았다.



### 웰크론그룹의 이웃사랑은 현재진행형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9일, 오전부터 차가운 바람이 몰아친 이날 인천 중구의 한 마을에 따뜻한 손길이 찾아왔다. 웰크론그룹 임직원 40명이 지역 소외이웃에게 전달할 연탄, 침구 선물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 웰크론은 지난 2009년부터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입사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연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도 웰크론, 웰크론한텍, 웰크론헬스케어 등 그룹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오후 2시가 되자 집결지에 모여들었다. 몸을 풀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도 잠시, 봉사단은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인천연탄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한적한 언덕길을 따라 봉사활동을 할 마을에 도착했다. 이들이 처음 마주한 건 거대한 연탄 더미. 성인 키만큼이나 쌓인 연탄 3,000장이 오늘 봉사단이 배달해야 할 몫이었다. 인천연탄은행의 도움 덕분에 마을 초입까지는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했지만, 굽이진 언덕 사이사이 좁은 길로 연탄을 나르기 위해선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연탄 후원량이 급감한데다, 봉사지역의 도로 환경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게 연탄은행 담당자의 말이었다. 특히 2015년 약 500원 정도였던 연탄 한 장 가격이 이제 850원으로 빠르게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에서 봉사자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웰크론 신입사원은 "연탄봉사도, 연탄을 만져보는 것도 처음인데 연탄이 생각보다 무거워 놀랐다"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힘내서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탄봉사는 연탄을 지게에 쌓아주는 팀, 지게로 각 가정에 배달하는 팀, 마지막으로 연탄 개수를 세며 정확한 량을 정해진 공간에 쌓아두는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줄지어 서서 연탄을 한 장씩 손으로 나르는 방식은 비효율적인데다 연탄재로 바닥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Kg 정도로, 지게를 이용해 여섯 개까지 등짐을 지면 만만치 않은 무게다. 손수레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 한 명이 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과 언덕길을 힘겹게 오가는 봉사자들의 옷은 어느덧 땀으로 폭 젖고 있었다. 조금씩 해가질 무렵 "다 했다"라는 외침과 함께 마지막 연탄이 전달되며 이날의 봉사도 끝이 났다. 연탄과 별도로 준비한 웰크론의 겨울침구세트까지 선물하며 봉사의 훈훈함은 더욱 커졌다. 봉사자들은 연탄 검댕이를 잔뜩 묻힌 채 지친 걸음을 옮기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그들의 마음 속에 오래 오래 남기를 바래본다. 웰크론그룹은 올해 12월에도 연탄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연탄 후원 안내**  인천연탄은행 · 봉사공동체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탄은행([www.yontanbank.or.kr](http://www.yontanbank.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자원봉사신청 등 문의 : 032-761-7176  
 기부 및 후원 : 농협 355-0061-2262-03/ 신한은행 100-033-670110  
 (예금주 : 인천연탄은행봉사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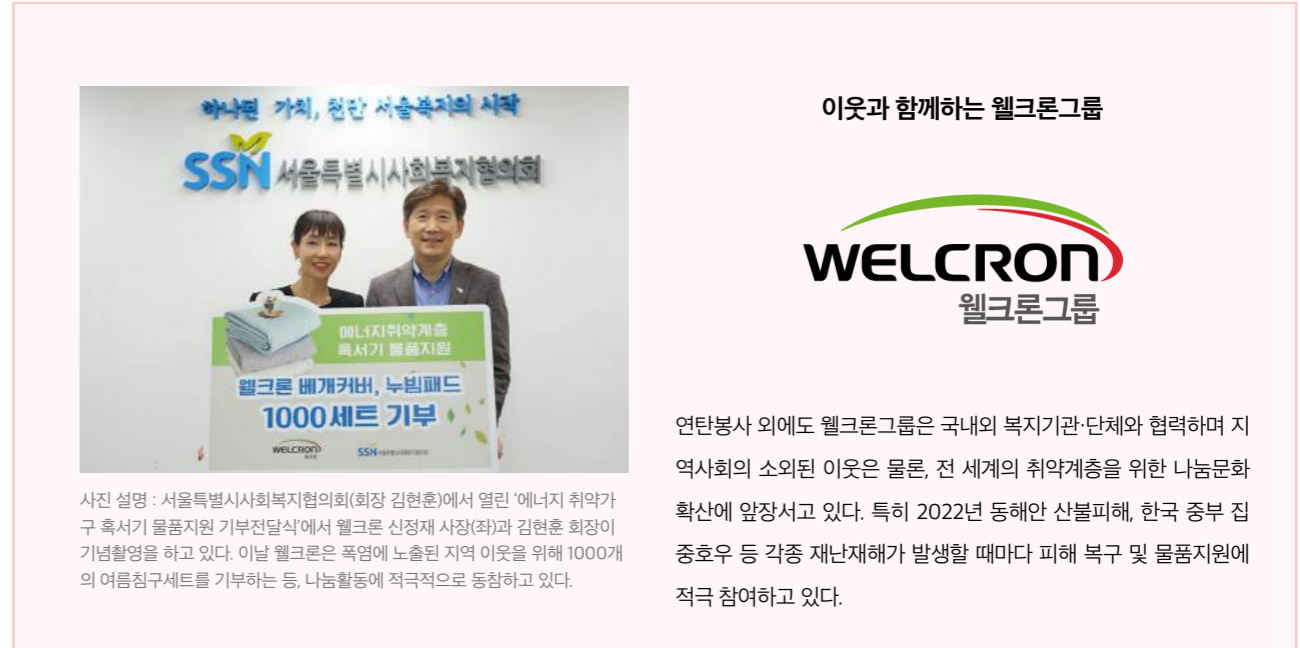


사진 설명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에서 열린 '에너지 취약가구 폭서기 물품지원 기부전달식'에서 웰크론 신정재 사장(좌)과 김현훈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웰크론은 폭염에 노출된 지역 이웃을 위해 1000개의 여름침구세트를 기부하는 등,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이웃과 함께하는 웰크론그룹



연탄봉사 외에도 웰크론그룹은 국내외 복지기관·단체와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은 물론, 전 세계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 한국 중부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 및 물품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다양한 고객을 아우르는 넓은 매장

임현주 점장이 운영하는 세사리빙 익산영등점은 매장이 넓다 보니 그만큼 침구의 가짓수와 양이 많고, 고객층도 40~60대 주부부터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편이다. 2019년 처음 문을 연 후, 첫 경영목표였던 매장 확장을 약 2년만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덕분이다.

개업 초기였던 만큼, 당시 주변에선 만류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과감히 매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었던다. 그녀는 "처음 대리점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우리 제품이 최고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고객 분들에게도 원단을 직접 연구 개발하는 (웰크론의) 기술력을 어필하곤 하는데,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 큰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침구업계 유일한 상장사로서 웰크론이 지닌 신뢰감과 탄탄한 기술력이 고객의 믿음을 얻는 데에도 큰 힘이 됐다는 것. 실제로 이곳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직함'을 신념으로 차별화된 쇼핑 경험까지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

### 살가운 이웃 같은 매장

자체적인 적립금 제도, 경품추첨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는 기본이다. 무턱대고 온라인 마켓과 경쟁하기 보다는 '오프라인'과 '지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서다. 익산주민들이 애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소중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언제나 친절하고, 고객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에 마음과 닿아서인지, 지역 커뮤니티와 포털에는 손님들이 남긴 칭찬 후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모든 고객에게 친절함과 솔직함으로 응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반가울 때가 있단다. 바로 기존 고객의 추천이나 소개로 방문한 경우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매장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임현주 점장은 "따님의 혼수와 예단을 사러 처음 오셨다가 지금은 어느새 그 따님과 손주까지 함께 오시는 단골이 계신데, 그럴 때 참 감사하고 그만큼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라고 전했다. **세사리빙이 품은 건강한 수면과 휴식의 가치를 지어고 나누고 있는 익산영등점, 오랫동안 사랑 받으며 고객들의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 세사리빙 익산영등점 익산에 꽃피운 SESA LIVING 포근함을 전하다

063-833-5999 / 0507-1356-5999  
전북 익산시 무왕로 1135(어양동 637-5) 1층  
운영시간 : (월~토) 10:00 - 21:00  
(일요일) 10:30 - 20:00

전라북도 익산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상권에 위치한 세사리빙 익산영등점. 2023 세사리빙 우수대리점으로 뽑힌 이곳 매장을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의 임현주 점장과 마주쳤다. 과거 직장인 시절, 웨딩업계에서 일했다는 점장님의 경력 때문일까. 사람과 사람이 얽혀 편안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듯이, 실과 실이 얽혀 탄생한 이곳의 이불도 유난히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 친절은 바로 돌아온다

세사(SESA) 현대백화점 미아점을 이끌고 있는 임미화 매니저는 이전에 다른 침구 브랜드 매장을 15년 간 운영했던 노련한 솜마스터다. 일에 매진하다 잠시 휴식기를 보내며 새로운 도전을 찾던 차에 세사 매니저로 영입제의를 받게 됐단다.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다시 배우며 세사와 동행한 지 벌써 5년 쯤이다. "이전에는 일반 면 소재 제품만 다루었기 때문에 '기능성' 침구를 맡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직접 써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아가다 보니 곧 자랑하듯 고객들에게 권할 수 있게 됐죠" 원단에 대해 묻는 손님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제품 기능을 설명하고, 취향과 니즈를 빠르게 캐치해 맞춤 구성을 판매하는 방식은 오랜 노력에서 나온 그녀만의 노하우다.

### 특별한 비법 대신 '친절'이 무기

특히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꼭 기억해내는 그녀의 꼼꼼한 성격은 방문객을 자신만의 '단골손님'으로 만들고 있다. 때로는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나 서비스보다도 고객을 향한 작은 친절과 관심이 몇 배의 감동을 만든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이날도 임미화 매니저는 한 손님이 오자 살가운 인사와 함께 지난 번 방문에서 자녀의 신혼이불을 샀던 일을 꺼내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평소 단골고객의 경조사까지 챙기며 관심을 쏟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녀는 "요즘은 저보다도 이불 원단이나 소재를 깊이 따져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세사의 가치가 인정 받을 때 보람을 느껴요"라고 말했다. 매출 비결을 묻는 말에는 오히려 특별한 비법은 없단다. 친절함 응대로 기본에 충실하고, 고객의 휴식과 편안함을 위한 조언이 더해지면 금세 단골이 된단다. 최근 한 고객이 현대백화점 의견함에 남긴 장문의 칭찬 칭찬후기가 더욱 눈에 띄는 이유다. 이곳에서 더 많은 고객이 감동과 친절을 경험해보기를 바란다.

*세사 매장의 임미화 매니저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해요^^ - 고객 후기 중*

## 세사 현대백화점 미아점 마음의 따뜻함, 편안함이 있는 SESA

02-2117-1749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 현대백화점 7층 SESA  
영업시간 : (월~목) 10:30~20:00  
(금~일) 10:30~20:30

현대백화점 미아점은 서울의 동북부 상권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미아사거리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길음뉴타운이 대규모로 조성된데다 리빙관 등 내부 리뉴얼 작업도 진행되며 매일 수많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그 순간을 함께하는 SESA 현대백화점 미아점을 찾았다.



##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 사례로 살펴본 정보보안 핵심 수칙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휴대전화나 컴퓨터, 디지털 매체에 담아두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보안'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주변 지인과의 소통부터 금융, 신분증, 소비 등 대부분의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고 있지만, 반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해킹하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디지털로 이전되는 정보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민감한 고객 데이터, 기밀정보, 사업전략 등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기업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들을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 쌓아가는 중이다.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서 비롯되는 오늘날, 정보보안은 기업의 생명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킹,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등 IT 환경에서 정보를 빼내기 위한 방법은 빠르게 다양화되고, 교묘해지는 추세다. 개인과 조직의 자산을 지키는 대표적인 보안 수칙을 소개한다.



### 1.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이나 URL 링크,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기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링크,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악성코드가 실행될 경우, 시스템이 감염되어 전산 피해를 입히거나, 스마트폰 혹은 PC에 담긴 각종 개인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링크나 연락에 응답하지 말고,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거래를 유도하는 메시지는 주의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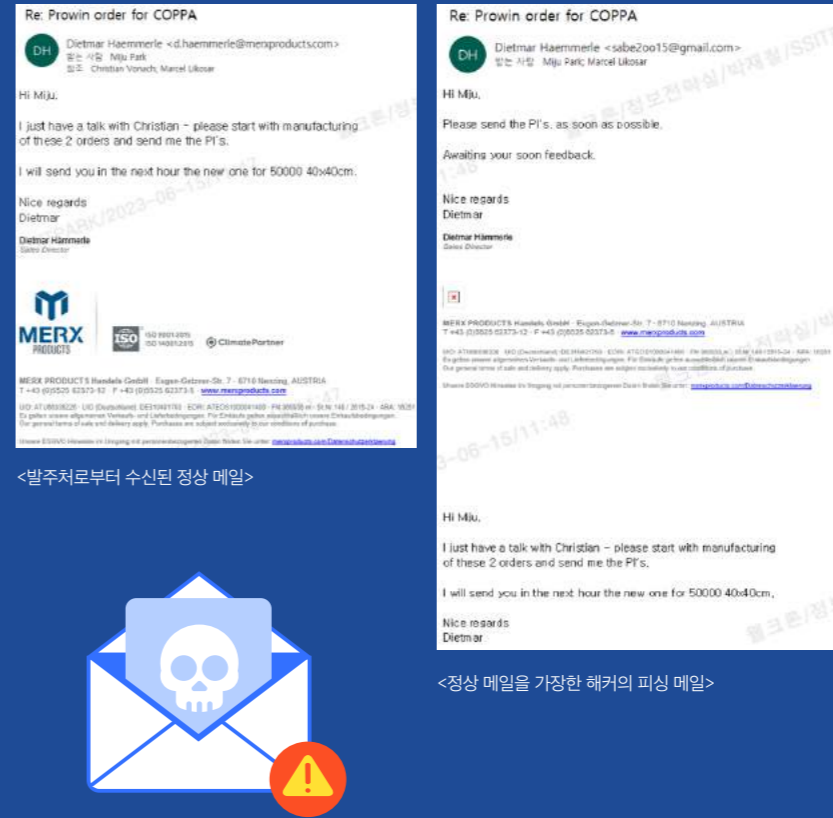
### 2. 강력한 암호 사용

일반적으로 편의를 위해 업무용이나 개인 이메일 계정, 모바일 뱅킹 등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평소 자주 쓰는 것으로 통일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영문과 특수문자, 숫자를 조합한 암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3.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백신 소프트웨어는 악성코드나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제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 검증된 백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실제 사례 분석



### 4. 메일주소와 상대방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좌변경이나 송금 요청 관련 내용을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2차, 3차 신원 확인을 거쳐 진행한다. 특히, 해외송금의 경우, 단순 전신환송금(T/T) 대신 은행을 통한 신용장거래(LC) 등을 이용하고, 선적서류 등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메일 내용이 익숙하더라도 올바른 메일주소인지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한다.

### 5.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

데이터 백업은 시스템 고장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적은 비용으로 더욱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23년 5월, 웰크론의 A직원은 오스트리아 소재 MERX사 담당자로부터 두 통의 메일을 수신했다. 오랜 거래처이고, 담당자도 친숙했지만 실은 그 중 하나는 해커가 보낸 피싱 메일이었다. 메일을 주고 받는 내용을 지켜보던 해커가 MERX사 담당자의 이름과 메일 양식, 프로필 이미지까지 비슷하게 꾸민 뒤 웰크론의 견적송장(PI)을 요구한 것.

A가 피싱 메일에 무심코 회신하자 해커는 그렇게 얻은 웰크론의 원본 PI를 변조해 자신의 계좌번호가 담긴 위조 PI를 제작한 뒤, 이번에는 MERX사에 웰크론 직원인 것처럼 꾸며 메일을 보냈다. 다행히 갑작스런 계좌 정보 변경 및 송금 요청을 의심한 MERX사 담당자가 웰크론에 직접 확인하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 여성을 위한, 생리대의 '자연'스러운 진화

###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소재 없을까?”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이 마주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상승하고 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꼽힌다. 특히 외부 변화에 민감한 여성들은 지나친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생리불순을 자주 경험하는데, 이로 인해 질염이나 생리통 등 여성 질환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은 인생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기간을 생리와 함께 한다. 생리가 땀처럼 땀 수 없는 동반자인 만큼이나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생리대다. 생리대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이기에 업계에서는 '불황이 없는 제품'이라고 부른다. 여성용품 특성상 한 번 선호하게 된 제품이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친화적인 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보다 엄격한 유해 물질 검출 기준치를 적용하면서도 각각의 특색을 자랑하는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여성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 안심하고 쓰고 싶어, 성능 보다 '안전한 소재'

조금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어지는 중이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일수록,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그 소재나 제조방법, 디자인 등에 더욱 간소한 기준을 세우기 마련이다. 최근 여성들이 위생용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인은 '안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착용감'이나 '흡수력' 등의 요소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요즘은 '커버(유기농 순면 사용 여부)'나 '흡수체(소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웰크론헬스케어의 여성용품 브랜드 예지미인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무표백 대나무 등 차별화된 소재와 젊은 감성을 더한 신제품들을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

### 네이밍과 패키지에 담긴 브랜드 아이덴티티

예지미인이 선보인 오가닛 데일리 & 오가닛 네추럴 생리대는 유기농 제품이 지닌 특징을 네이밍과 패키지 디자인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오가닉(Organic)'과 '아이템(Item)'의 합성어인 '오가닛(Organit)'으로 명명한 유기농 라인업은 현재 데일리와 네추럴 2종의 제품이 출시됐다. 특히 오가닛 데일리는 찹쌀떡토끼 모양 인기 캐릭터 몰랑이와 협업해 유기농 순면의 순수함을 패키지 디자인 전면에 담아냈으며,

오가닛 네추럴 또한 대나무 무표백 속커버 생리대에 걸맞게 자연 그대로의 컬러와 최소한의 배색으로 깔끔한 느낌의 패키지를 완성했다. 생리대 패키지의 색다른 방향을 제시한 예지미인 '오가닛 데일리'와 '오가닛 네추럴'을 살펴보자.



### 예지미인 오가닛 데일리 생리대

<올리브영 온라인몰 단독 기획, 몰랑이 키링세트>

오가닛 데일리는 3년 이상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채취한 목화를 커버(탑시트)에 사용한 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다. 수천 개의 에어홀을 구현한 '프레시 에어핏' 설계로 덥거나 습한 날에도 보송하고 산뜻하게 착용할 수 있다. 특히 몰랑이의 순수함을 형상화한 감성적인 패키지 디자인과 더불어 락앤락 에디션, 몰랑이 키링 등 콜라보 굿즈를 적극 개발해 생리 기간 소소한 즐거움까지 선사하고 있다.



### 예지미인 오가닛 네추럴 생리대

<대나무 무표백 속커버 생리대>

올리브영 온라인몰을 통해 선보인 예지미인 오가닛 네추럴 생리대는 화학적인 표백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표백 대나무 흡수티슈와 유기농 순면커버를 사용,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낮춘 제품이다. 피부에 직접 닿는 탑시트는 국제 유기농 공인기관의 'OCS(Organic Content Standard)' 인증을 받은 유기농 순면으로 만들어졌으며, 고분자 화학흡수체(SAP) 대신 3중 네추럴 흡수구조로 흡수력을 높였다. 화학적인 표백과정을 거치지 않아 대나무 소재 본연의 색을 띤 티슈가 포인트다.

# NEWS

01



### Welcron몰-에이스침대, '웨딩 멤버십' 제휴로 혼수시장 공략 맞손... "침대·침구, 한번에"

침구업계와 침대업계의 대표기업이 연초 혼수시장 공략을 위해 힘을 모은다. 토털 리빙기업 웰크론(사장 신정재)은 자사의 공식 온라인몰 '웰크론몰'과 에이스침대의 '에이스 웨딩멤버십' 멤버십 제휴를 진행하고, 웨딩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기능성 침구 특별 구매혜택을 제공하는 신혼 맞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에이스침대 웨딩멤버십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침대와 매트리스는 물론, 제휴사 협업으로 각종 신혼·혼수 관련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 혜택을 제공해 예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웰크론몰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호텔 베딩', '미니멀리즘 베딩' 등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침실 스타일링 테마 상품군을 강화하는 한편, 에이스침대 웨딩멤버십 회원들에게 감사 쿠폰팩 등의 기본 혜택과 더불어 알러지케어 기능성 이불·침구류 및 리빙 생활용품 10% 할인쿠폰과 무료배송 쿠폰 등 프로모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웰크론몰의 신혼 맞춤 프로모션은 에이스침대 웨딩멤버십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웰크론몰 신규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acebed'를 입력하면 참여가 완료되며, 이벤트 페이지에서 에이스침대 웨딩멤버십 회원번호를 입력하면 멤버십 전용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부혜택 등 상세 내용은 웰크론몰 홈페이지와 에이스침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 Welcron, 세사리빙 우수대리점 초청 해외연수 진행

Welcron(사장 신정재)의 알러지케어 기능성 침구 브랜드 '세사리빙'은 우수대리점을 초청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대리점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소비침체 등 어려운 시장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인 우수대리점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대리점주들의 사기함양과 더불어 협업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에는 전국 200여개 세사리빙 대리점 중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한 15개 대리점 23명과 영업지점장 6명, 본사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베트남 다낭에서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소매시장과 유통문화를 견학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브랜드 본사 임직원과 대리점주 간 거리감을 좁히고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Welcron은 지난 2011년 세사리빙 대리점 사업을 시작한 이후 대리점주를 위한 상생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우수대리점 대상 연 1회 해외연수 경비 전액 지원 등 동기부여 목적의 프로그램부터 매출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지원하고 있다.

모든 대리점에게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영업컨설팅부터 SNS 활용 교육·홍보콘텐츠 지원 △현수막, 전단 등 광고판촉 지원 △상권 맞춤 특가상품 지원 △CS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본사 차원의 전국적인 마케팅·프로모션과 별도로 대리점들에 시장경기나 상권에 맞는 맞춤형 홍보활동과 영업역량 강화 등의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03



### Welcron, 'ePTFE' 소재로 KIMES 2023 참가

산업용 섬유 전문기업 웰크론(사장 신정재)은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COEX)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 참가했다. 'KIMES 2023'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산업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1,300여개사가 참가하여 첨단 의료기술부터 의료용품 등 약 3만5000여 점의 제품·서비스가 전시됐다.

Welcron은 이번 전시회에서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를 이용한 스텐트용 ePTFE 튜브와 그 제조기술을 선보였다. Welcron은 바이오 메디컬 섬유 소재 분야 연구를 거듭하며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ePTFE 튜브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Welcron의 ePTFE는 PTFE를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미세한 두께로 연신해 균일한 기공을 구현한 중공사막(hollow fiber membrane) 형태의 소재다. 우수한 생체적합성·내구성을 지녀 인체에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주로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스텐트나 인공혈관 등 치료재료로 활용되는데, 과거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Welcron은 이러한 첨단 의료용 소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고객사의 요구 성능에 맞춰 제품 두께나 직경 등을 세밀하게 구현하는 초미세 가공기술을 토대로 국내 연구기관·스텐트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4.3~20mm 직경의 스텐트용 ePTFE 15종을 출품하고 고객 맞춤형 공급 능력을 부각했다. Welcron은 기술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인간의 혈관을 100% 대체 가능한 인공혈관 등 ePTFE 제품군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4



### Welcron한텍,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플랜트·종합건설기업 웰크론한텍(대표 이영규)은 ICR 국제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에 대응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협의를 거쳐 2018년 제정됐다.

Welcron한텍은 지난 2021년 발족한 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ISO 요구 조건에 맞춘 안전경영체계와 조직 구성, 안전규범 등을 확립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상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elcron한텍은 이번 ISO 45001 인증을 통해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안전경영 의지와 뛰어난 안전관리시스템을 입증하게 됐다. 앞으로도 임직원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전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경영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각종 재해예방조치들도 꾸준히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Welcron한텍 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전사적인 참여와 안전보건 활동의 일상화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제 표준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며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토대로 임직원은 물론 고객에게도 신뢰받는 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05



## 웰크론, 방산본부 김해공장 확장이전 완료... “방산사업 탄력 기대”

산업용 섬유 전문기업 웰크론은 방산사업을 담당하는 웰크론 방산본부 김해공장의 확장 이전 및 첨단설비 확충을 완료했다. 웰크론은 지난 6월 16일 웰크론 김해 신공장에서 웰크론그룹 이영규 회장을 비롯해 웰크론 신정재 사장, 방산본부 이재호 상무, 제조기술센터 김천수 상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이전식을 진행했다.

웰크론은 현재 주력 제품인 기능성 침구 외에 방산본부를 통해 방탄판과 방탄·방검복, 방탄가방, 방폭텐트 등 다양한 방산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 달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약 50억 원 규모의 레벨4 방탄판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확장 이전으로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에 새롭게 구축된 김해 신공장은 총면적 약 9,900㎡ 규모로, 초대형 프레스 및 오토 클레이브 설비 등을 갖추고 다양한 유형의 방탄판 제조와 개발 양산을 위해 마련됐다. 생산력 강화와 더불어 기존 임대 계약 방식 대신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와 함께 우수한 입지를 토대로 영업활동 전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웰크론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공장을 적극 활용해 군용 선박·함정, 지뢰방호차량, 장갑차 등에 적용되는 부가장갑 방탄판 개발에 기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방호 등급의 방탄판 대비 더 얇고 무게가 가벼운 개인용 경량방탄판 등 우수한 제품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방산시장 공략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06



## 예지미인, 오가닛데일리 생리대X몰랑이 키링 세트 콜라보 출시

여성용품 전문 브랜드 예지미인은 인기 캐릭터 몰랑이와 협업해 ‘오가닛데일리 생리대 몰랑이 키링 세트’를 신규 출시했다. 예지미인이 8월 올리브영 온라인몰 단독 기획상품으로 선보인 이번 콜라보 세트는 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 오가닛데일리와 몰랑이 키링(열쇠고리)으로 구성됐다.

해당 세트에 포함된 예지미인 오가닛데일리는 3년 이상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목화를 사용한 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다. 수천 개의 에어홀이 더해진 ‘프레스 에어핏’ 설계로 덥거나 습한 날에도 보송하고 산뜻하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사이드게더와 360도 샘 방지 라인으로 샘 걱정을 덜어줄 뿐 아니라, 패키지에서 생리대를 한 장씩 깔끔히 꺼낼 수 있는 인박스 형태로 제작돼 사용 및 보관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찹쌀떡토끼 모양 캐릭터인 몰랑이의 순수함을 형상화한 키링 10종을 무작위로 하나씩 동봉해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컨디션이 저하되는 생리 기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기획됐다.

앞서 오가닛데일리 락스 에디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몰랑이 캐릭터의 새로운 모습을 아기자기한 키링으로 만날 수 있으며, 파우치나 가방 등에 포인트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다.

예지미인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통해 고객들과 친근하게 교감해나갈 예정”이라며 “산뜻한 착용감이 장점인 오가닛데일리와 귀여운 몰랑이 키링으로 월경 기간 기분 좋은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7



## 예지미인, 대나무 무표백 생리대 ‘오가닛 네추럴’ 출시

여성용품 전문 브랜드 예지미인은 표백 공정을 뺀 무표백 속커버를 적용해 대나무 소재의 색을 그대로 담은 ‘오가닛 네추럴 생리대’를 신규 출시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을 통해 선보인 예지미인 오가닛 네추럴 생리대는 화학적인 표백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나무 흡수티슈와 유기농 순면커버를 사용해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피부에 직접 닿는 탑시트는 국제 유기농 공인기관의 ‘OCS(Organic Content Standard)’ 인증을 받은 유기농 순면으로 만들어졌으며, 고분자 화학 흡수체(SAP) 대신 대나무 소재 본연의 색감이 살아있는 무표백 흡수티슈와 펄프 흡수체가 적용됐다.

수천 개의 미세한 에어홀이 구현된 유기농 순면커버와 무표백 티슈, 펄프 흡수체의 3중 네추럴 흡수구조가 생리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흡수하여 양이 많은 날에도 산뜻한 착용감을 유지해준다. 제조, 포장, 보관 등 모든 제조공정을 국내에서 예지미인 분사 직영으로 관리해 제품 신뢰도를 높였다. 예지미인 관계자는 “인공적인 화학물질 사용을 최대한 배제해 여성과 자연을 동시에 생각한 제품을 기획하고, 다양한 소재를 시험한 끝에 출시하게 된 대나무 무표백 생리대”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브랜드’를 목표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08



## 웰크론몰, 추천인 보상 강화... “친구가 살 때마다 3% 적립금 지급”

웰크론의 공식 온라인몰 ‘웰크론몰’이 지인 초대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결제액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추천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존 친구 추천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신규 회원을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충성고객에게는 강력한 부가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웰크론몰은 리빙·여성용품·생활용품 등 웰크론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기 브랜드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통합몰이다. 새로 시행되는 추천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웰크론몰을 지인에게 소개 및 추천한 회원과 추천을 받아 새로 가입한 회원 모두 번거로운 절차 없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웰크론몰 신규 이용자는 기존 회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10만원 상당의 기본 웰컴 쿠폰팩 외에도 플러스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회원 또한 자신이 초대한 사람이 웰크론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그 결제액의 일부를 ‘추천인 적립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추천인 적립금 비율은 배송비 등을 제외한 실 구매금액의 3%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 간 발생하는 구매 건에 대해 매월 정산되며, 적립금은 웰크론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웰크론몰 추천인 리워드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웰크론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웰크론몰 관계자는 “공식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구매혜택을 더 많은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추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주변에 추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알뜰한 소비를 돕고 쇼핑 만족감도 높일 수 있는 여러 신규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웰크론몰은 지난 2021년 4월 리뉴얼 오픈과 함께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하고 누적주문금액에 따라 상시 추가 할인, 무료배송 쿠폰 등 등급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웰크론 그룹  
**정보보안 캠페인**  
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수칙.zip

**악성 메일 주의**

- 메일 주소는 항상 꼼꼼히 확인
- 신뢰할 수 없는 메일 열지 않기
- 필요 시 발신자 신원 재확인(통화 등)

**비밀번호 관리**

- 계정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꾸기
-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사용하지 않기

**URL 링크 주의**

- 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불분명한 URL 링크 함부로 누르지 않기

**첨부파일 주의**

- 출처 불분명한 메일 첨부파일,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는 악성코드가 있을 수 있다

**퇴근 시 PC off**

- 퇴근 시 컴퓨터 전원은 반드시 종료
- 개인 노트북은 기업 내부망 접속 X

**악성 앱·프로그램 주의**

- 설치 전 출처, 제조사 꼼꼼히 확인
- 백신 프로그램 사용 및 업데이트 필수

‘회사’와 ‘고객’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정보보안 수칙, 잊지마세요



업무 중 해킹, 랜섬웨어, 바이러스 감염 등 피해 의심 상황 발생 시에는 정보기술팀에 즉각 신고해주세요

예지미인

Women's Life Balance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예지미인이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우리의 자연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예지미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